

군사문화산업 최적지 韓, 규제에 갇힌 관련시장 ‘전멸’

창간 18주년, 軍 전문가의 제언
한국 군사문화 콘텐츠 절실

‘비비탄’ 에어소프트건 규제에
후발주자 대만·中 등 시장 주도
전동모터 사용 에어소프트건
한때는 H 이어 두번째 출시도

“에어소프트건 세계기준 1~7J
0.2J 국내기준 터무니 없게 낮아
정부 과도 규제에 수출포기 전환”



2018년 7월 대만 G&G사가 후원한 대만육군 보병학교 밀심체험 현장(위)과 같은해 러시아에서 대규모 열린 밀심행사에서 러시아 팀이 G&G사의 협찬증서를 들어 모이고 있다. /G&G사 홈페이지

군을 소재로 한 군사문화산업 중 최근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6mm 플라스틱 비비탄(이하 비비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 관련 분야다. 그렇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해 온 탓에 한국보다 후발주자인 중화민국(대만)과 중국에 관련 시장을 스스로 넘겨주는 형국이 됐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일부 선진국 군대에서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모의 전투 훈련 등을 실시해, 군사적 효과를 내고 있다. 징병제 체제인 대한민국은 현역 복무와 예비군 훈련 이수가 병역의무인 만큼 에어소프트건을 이용한 전술훈련, 일명 ‘밀심(Mil-Sim)’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만, 원조 일본 제치고 에어소프트건 강자로

에어소프트건 시장에서 최강자로 굴림하는 기업은 대만의 G&G사다. 연매출이 한화로 1조원대로, 이들이 생산하는 에어소프트건은 대만 육군과 해병대

의 전술훈련에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군 당국과 연계된 밀심대회와 국제 밀심대회가 대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대만에는 연매출 1조원(한화)대의 에어소프트건 업체가 3곳 정도 있다. 에어소프트건 뿐만 아니라, 밀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투복 및 전투 장구류 제조·유통 기업도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대만의 J-TECH사는 레플리카 미군 전투복과 전투 장구류의 저가 ‘레플리카(모조품)’를 만들던 회사지만, 미군 PX에 납품할 정도로 성장했다.

에어소프트건과 레플리카 전투 장구류 제조 및 유통의 원조는 일본이다. 제2차세계대전 리인액트(재현) 행사에 공포탄을 사용하는 실총 대신 가스탱크

와 전동모터를 단 에어소프트건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일본 업체들이 앞다투어 고품질의 에어소프트건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동모터를 이용한 발사구조를 가진 안전한 에어소프트건으로 유명한 도쿄 마루이사는 한때 에어소프트건 시장의 대명사와 같았다. 국내에서는 정밀모형 기업 아카데미과학이 1994년 세계 두번째로 전동모터를 사용한 에어소프트건을 출시했고, 세계 시장에서 나름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군사문화동호인들 사이에서 일명 ‘96 대란’이라 불리는 경찰의 대대적인 에어소프트건 단속으로 국내 에어소프트건 시장은 ‘페스트 암흑기’를 맞이했다는게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중론이다.

대만 또한, 한국처럼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가 심했던 국가였다. 그렇지만 2008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모병제’ 공약과 맞물리면서 밀심인구를 통한 예비전력 확보 차원에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됐다.

군입대 지원희망자가 저조한 것(2013년 기준 목표 인원 2만 8531명의 30.2% 수준)을 에어소프트건과 밀심장려로 극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군대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관련업체가 발이 묶여있는 한국과 달리, 대만 기업들은 군납과 민수 판매를 유연하게 할 수 있어, J-TECH와 같은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언론, 왜곡 보도… 규제 낙원으로

지난 1월 8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에어소프트건과 관련해 지나치게 위험성이 과장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고, 대다수 언론들은 에어소프트건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다.

3월 30일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 제품안전과는 에어소프트건의 발사체 운동에너지 제한 기준인 0.2J(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설계된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생활용품(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J의 운동에너지(탄을 내보내는 힘)가 필요하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통상 1~7J 정도(0.2R그램 플라스틱 비비탄 기준)로, 국내기준의 0.2J에 맞춰 생산하지 않는다.

에어소프트건 관련업체는 “0.2J이라는 기준도 터무니 없게 낮았는데 파워

레이크(감속기) 없이 원천적으로 0.2J로 설계하라는 것은 관련 업계에 고압제를 뿌리는 격”이라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의 벽을 높이는 사이 국내업체들은 수출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한 총기 전문가는 “안전측면에서 규제를 높여온 당국이지만 정작 에어소프트건으로 인한 ‘사고통계’는 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호장구류를 착용한 밀심은 안전한 레포츠다. 문제는 KC 기준으로 성인용으로 지정된 에어소프트건을 미성년 아동에게 판매하거나 사주는 부모들”이라고 말했다.

관련업체에서는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내수시장과 수출효과 촉진, 군의 전력지원물자 산업의 발전 등 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 관련업 종사자는 “에어소프트건에 부착되는 광학장비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조준경과 같은 광학장비의 일반구매가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민수용에 한해 표적지시기 구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전력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 OC-K)’의 고문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육군중장 전역)도 “일반인들의 우려와 생각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에어소프트건은 군사훈련 효과도 있어 나라 안보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보다 제한을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통합당, 비대위 통해 진취적 정당될 것”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첫날인 1일 ‘정책 선도’를 약속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정부·여당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발언이다. 이와 함께 ‘국정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부터 단순하게 방역이라는 것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여러 상황에 대해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음 회의에서(코로나 사태) 저희 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비대위가 실패한 것은 일은 하지 않고 현장을 중요시하지 않아서 그렇다. (앞으로)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하는 데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들이 돕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경제혁신위원회’를 비롯해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국내 현안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할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예고해 국가적으로 잘 대처해야 한다.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비대위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또 김 위원장은) 국가 존립의 문제인 저출산(이슈가) 지속해(출산율) 악화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 교육 불평등에 대해(연구하는) 역

할도 비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 변화에 대한 정책 구상, 30대·40대 청년과 호남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당의 정책적 기능과 함께 메시지를 내는 부분에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당이 그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며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게 약화해 있다고 했다”며 “주 원내대표도 비대위가 구성된 만큼 비상 체계로 24시간 국가적 상황을 관리하고 언론이나 국민 관심사를(메시지로 하는) 시스템을 가동해보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IPTV·케이블TV 등 유료방송 품질평가

과기부, 총 18곳… 평가단 2400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 제공과 사업자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평가에 이어 작년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본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지난 품질평가를 토대로 평가

의 객관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대상, 항목, 방식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서울·경기지역 9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지역 개별 케이블TV 사업자인 9개사를 포함해 모든 유료방송사 18개사로 확대하고, 평가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영상체감품질 이용자 평가단 규모도 기존 360명에서 2400명으로 늘렸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농식품부, 30억 투입 마늘 수급안정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20년산 햇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약 1만2000t의 소비·수출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 발표한 ‘20년산 햇마늘 추가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정부 비축, 출하정지, 소비홍보 등을 시행 중이며, 이번 대책은 소비·수출 진작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해외 수출 물류비 추가지원과 언택트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미국시장 등에 약 6000톤의 마늘을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선박·항공 물류비에 대한 추가 지원(기존 7%→14%) 기간은 당초 지난 5월 31일 종료됐으나, 이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지 유통업체 오프라인 판촉과 함께 현지 유명 웹프 등의 레시피 영상 제작·송출 등 언택트 마케팅도 병행한다.

공영홈쇼핑, 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최대 100회까지 기획전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 경북 사이소 등 각 지자체 자체 온라인 판매물에서 수시로 기획전을 연다. /한용수 기자 hys@